



일본 대형 손보사와 지주계열 생보사의 영업실적 개선 추세

이상우 선임연구원

■ 2011년도 이후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와 보험지주회사(손해보험회사 자본) 산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대형 손해보험회사(상위 3개사)가 12월 6일 발표한 영업실적에 따르면 2011년 11월 말 기준의 수입 보험료는 4,743억 엔으로 전년동월 대비 4.4% 증가하여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이러한 영업실적 호조세는 신규 자동차 판매가 자동차 리콜사태 이전 실적을 회복하고,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이 20% 이상 성장하였기 때문임.
 - 그 결과 자동차보험 전체 수입보험료가 2.1% 증가하였으며,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보험 판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함.

■ 한편,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된 보험지주회사 산하의 생명보험회사들도 자회사 간 시너지를 활용한 공동 상품개발 및 판매채널 공유 등으로 보험영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.

- 손해보험재팬 자본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현재 해외법인을 비롯해 70개(기타 관련회사 30개사 제외) 이상의 금융·보험 관련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NKSJ홀딩스 경우 산하의 2개 생명보험회사들의 신계약 건수가 201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5.4% 증가함.
- 또한,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자본의 MS&AD홀딩스(37개사 이상의 금융·보험 자회사를 소유)의 경우 산하 2개 생명보험회사들의 신계약 건수도 전년동기 대비 11.9% 증가하였으며, 동경해상홀딩스 산하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생·손보 통합상품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됨.
- 이러한 실적 개선은 산하 생보사 간의 통합효과, 생·손보 자회사 간 판매채널 공유를 통한 일본 특유의 교차판매 및 비용절감 효과, 초보험 등 통합상품의 공동 개발 및 판매, 꼭 필요한 특약상품만 추가하여 보험료의 거품을 제거한 상품개발 및 상품 간소화, 소멸성 소득보상보험의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요약됨.

(니혼게이지신문 12/6, 산케이신문 12/5, response news 종합 11/30)